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또래애착 및 부모 양육 태도의 조절효과 분석

김인
울산스마일센터

The Moder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and Parenting Attitud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ithdrawal and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In Kim
Ulsan Smile Cente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지지체계인 또래 관계 및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의 조절효과를 파악하여 심리·사회적 개입의 방향성을 제언하고자 함이다. 연구자료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조사의 2018년도 데이터이고, 연구대상은 중학교 1학년 2,409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량분석, 상관분석, 평균중심화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첫째, 사회적 위축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사회적 위축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또래 애착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래 애착의 수준에 따라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셋째, 사회적 위축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였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가 높은 집단은 사회적 위축이 높을 경우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가 낮은 집단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덜 감소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위축이 높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의 방향성과 본 연구의 제한점이 제시되었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psychosocial intervention by investigation.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and patients' positive attitud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ithdrawal and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Data was obtained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and study subjects included 2,409 first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 25 program, and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psychological withdrawal in the social relationship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Second, peer attachment did not have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ithdrawal and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Third, positive parenting attitude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ithdrawal and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The high-positive parenting attitude group showed less decline in life satisfaction even if social withdrawal was high compared to the low-positive parenting attitude group. Based on these results, we provide effective direction of intervention to elevate the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experiencing social withdrawal.

Keywords : Social Withdrawal, Life Satisfaction, Peer Attachment, Positive Parenting Attitude, Moder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In Kim(Ulsan Smile Center)

email: inee13@hanmail.net

Received August 31, 2020

Accepted January 8, 2021

Revised October 16, 2020

Published January 31, 2021

1. 서론

삶은 태어나고 죽는 것으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 있다. 일찍이 불교에서는 생즉고(生即苦), 즉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라는 진리를 가르쳤다. 즐거움과 괴로움이 번갈아 찾아오는 긴 삶의 여정에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균형을 찾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쓰며 살아간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청소년도 예외는 아니다. 삶의 만족도란 삶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인 평가의 측면으로, 삶에 대해 인지하는 총체적인 만족감을 의미한다. 이는 정서적 측면들보다 더 안정적이면서도 개인 내적 조건과 환경적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성질을 지닌다 [1,2]. 청소년이 인식하는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는 이후의 삶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된 보고가 있다[3].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어지는 중간단계로, 발달상의 변화에 따라 신체적, 심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 시기 동안 부정적인 경험이 누적될 경우, 심리적 불안상태가 지속 되어 정서 및 행동적 문제를 나타낼 수 있고, 그 영향력은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여러 사회관계를 통해서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물리적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청소년기에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으면 위축되고, 수줍고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행동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 받거나 거부당하는 등 사회적 목적의 효율적 성취를 방해하는 경향을 보인다[4]. 이러한 사회적 위축은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적응적 행동 가운데 하나[5], 시간적인 안정성을 보이면서 이후 성인기의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8].

사회적 위축과 같이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위험요인의 소거보다는 보호요인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주장이 있다[9].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위축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안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래 관계, 부모 양육 태도 혹은 교사의 지지가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들이 보고되었다[10,11].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지지 체계가 보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기는 애착 관계에서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로, 청소년기의 사회관계 네트워크 속에서 또래관계의 중요성과 또래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한

다. 부모보다 또래를 애착 대상으로 더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12]. 그런데 청소년기에 부모와의 애착 및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 또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11]. Bowlby는 청소년기에도 부모는 여전히 안전기지로 작용하여 스트레스 상황이나 위험 상황에 직면 시 애착 체계를 재활성시킨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부모의 양육방식이 부모-자녀 간 애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13].

현재까지 국내 연구에서 사회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Lee[5], Lee, Yun 등[14]의 연구가 전부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사회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줌에 있어서 보호 요인에 대한 연구도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성공적인 발달과업을 방해하는 사회적 위축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있어서 청소년이 가장 빈번히 접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인 또래 애착 및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심리·사회적 개입 시 지지체계에 대한 접근 방향성을 제언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사회적 위축과 삶의 만족도

사회적 위축이란 새로운 대인관계나 사회적 상황에서 움츠러들, 긴장, 초조, 회피 등으로 고립되고 위축되는 것을 의미한다[15,16]. 즉, 대인관계에 대한 불안, 두려움, 혼자에 대한 선호로 인해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다[17]. 사회적 위축은 영유아기 및 아동기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청소년기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증가하였다. 청소년기의 사회적 위축은 영·유아기 때의 기질적 행동역제[18]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 태도[19]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두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15]. 이러한 사회적 위축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외에서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회적 위축과 삶의 만족도 간의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보고되었다[20-22]. 또한, 청소년기의 반복되는 사회적 위축은 우울, 불안, 낮은 자존감, 외로움 등의 심리적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23,24], 타인의 감정과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대인관계 형성을 방해하며, 결과적으로 삶

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25-27].

2.2 사회적 위축, 또래 애착과 삶의 만족도

또래 애착은 청소년기의 핵심적인 발달과업 중 하나로 또래와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의미하고, 청소년에게 정서적 안정감 및 지지를 제공한다[28]. 청소년기 또래 애착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강도와 영향력이 증가한다[29,30]. 또래 관계는 청소년기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사회화의 주요 매개체이기도 하다[31]. 또래 애착은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신뢰와 소통과 같은 긍정적인 또래 애착이 높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에 비해 친구가 많고 학교에서 잘 적응하며 대인관계에서의 유능감을 가지게 된다[32]. 즉 청소년기 또래 애착이 안정적인수록 새롭고 낯선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도전적으로 해결하면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33,34].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을지라도 또래 관계가 좋을수록 사회적 위축이 줄어들는데, 또래 관계는 사회적 위축이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야기함에 있어서 보호요인으로도 작용하며, 정서적 문제의 감소는 삶의 만족도로 이어질 수 있다[7,24].

2.3 사회적 위축,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와 삶의 만족도

양육 태도란 부모 혹은 양육자가 양육 시 보이는 전반적인 행동과 태도로, 외현적·내현적 행동을 모두 일컫는다[35]. 부모의 양육태도는 내적작동모델 형성에 기여하여[13] 부모-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의 심리사회발달에 큰 영향을 주며, 성격과 정서, 자아개념, 태도, 행동수행 능력, 가치관 등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6]. 이러한 부모 양육 태도는 애정, 관심, 적대, 통제, 자율, 지배, 허용, 수용, 학대 등과 같은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37]. 그 중 온정, 애정, 지지, 격려 등을 특징으로 하는 긍정적 양육 태도는 청소년의 긍정적인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건전한 자아개념 형성, 긍정적 자아발달 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38,39]. 반대로 지배, 적대, 간섭, 학대 등의 부정적 양육 태도는 청소년의 우울, 비행, 스마트폰 의존 등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40,41]. 이러한 부모의 양육 태도는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 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영향을 미치는데, 청소년기에 부정적 또래 애착을 형성하였더라도

부모의 양육 태도가 긍정적인 경우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고[33],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상승시킴으로써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42]들이 있다. 또한,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더라도 부모의 애정적 양육 행동, 양육의 비밀관성, 과잉간섭의 정도에 따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43]. 주양육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부모의 양육 태도가 온정적일수록 사회적 위축이 크게 줄어든다는 보고들이 있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는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나 자아효능감과 같은 자기개념에 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7,42].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이 관계에서 또래애착 및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사회적 위축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또래 애착은 조절효과가 있는가?
- 2) 사회적 위축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는 조절효과가 있는가?

3.2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이하 KCYPS 2018) 자료를 분석하였다. KCYPS 2018는 KCYPS 2003(2003-2008), KCYPS 2010(2010-2016)의 후속 조사로,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CYPS 2018의 표본은 2018년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다단계층집락표집방식으로 추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제1차 조사를 완료한 패널 총 5,197명 중,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중학교 1학년 학생 2,59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결측값 데이터를 제외한 총 2,409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데이터가 선택된 이유는 최신 조사 자료이면서 동시에 사회

적 위축, 삶의 만족도, 또래 애착 및 부모 양육 태도가 모두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3.3 연구변인

3.3.1 독립변인: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 척도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자료의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등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 까지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값은 .874로 나타났다.

3.3.2 조절변인1: 또래 애착

또래 애착 척도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자료에서 친구관계와 관련된 13문항을 사용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 까지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문항은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잘한다',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고 잘 따른다' 등의 긍정적 관계를 측정하는 8 문항과, '친구와 싸우면 잘 화해하지 않는다', '친구들은 나의 어렵고 힘든 점에 대해 관심이 없다' 등의 부정적 관계를 측정하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관계 문항들을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본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강한 것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값은 .852로 나타났다.

3.3.3 조절변인2: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

부모의 지지적 양육 태도 척도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자료에서 부모 양육 태도 측정을 위해 사용된 24문항 중 '따스함'을 측정하는 4문항, '자율성지지'를 측정하는 4문항, '구조제공'을 측정하는 4문항,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 까지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값은 .918로 나타났다.

3.3.4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척도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자료의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자신의 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좋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등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 까지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값은 .851로 나타났다.

3.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IBM SPSS Statistics 버전 25를 사용하였고,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변인 간의 타당도와 다중공선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사회적 위축과 삶의 만족도에서 또래 애착 및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acobucci 등[44]의 제안에 따라, 독립변인 및 조절변인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줄이고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R^2)에 대한 평가보다 조절변인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분석결과의 해석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독립변인 및 조절변인에 대한 평균중심화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분석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2,409)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빈도 분석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의 경우 남학생은 1,298명(53.9%)이고 여학생은 1,111명(46.1%)으로 구성되었다. 부모의 학력을 살펴보면, 부모 모두 고졸 이상인 대상자가 부모 모두 고졸 미만인 대상자보다 대략 두 배 많았고, 모의 경우 대졸 이상인 경우가 절반 가까이 해당되었다. 월평균가구 소득의 경우,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991명, 41.1%)이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572명, 23.8%),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443명, 18.3%), 800만원 이상(311명, 12.9%), 200만원 미만(92명, 3.9%) 순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Spec. (Unit: n, %)	Freq.	Percentage
Gender	Male	1,298	53.9
	Female	1,111	46.1
Level of Education (Father)	Under high school graduate	889	36.9
	College graduate	633	26.3
	University graduate or more	887	36.8
Level of Education (Mother)	Under high school graduate	775	32.2
	College graduate	484	20.1
	University graduate or more	1150	47.7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Under 2million won	92	3.9
	2million won ~under 4million won	572	23.8
	4million won ~under 6million won	991	41.1
	6million won ~under 8million won	443	18.3
	8million won~	311	12.9

4.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분석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위축, 또래애착 및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SD), 왜도 및 첨도의 분석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사회적 위축의 경우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10.731(SD=3.744), 또래애착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40.688(SD=5.568),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39.246(SD=5.782), 삶의 만족도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13.945(SD=2.989)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 및 삶의 만족도의 경우 최소값과 최대값은 평균 ±3SD의 범위 내에 분포하고 있다. 반면, 또래애착 및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는 최소값이 -3SD를 넘어서고 있어 정규분포의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 (N=2,490)	Social withdrawal	Peer attachment	Positive parenting attitude	Life satisfaction
Minimum	5.00	15.00	12.00	5.00
Maximum	20.00	52.00	48.00	20.00
Mean (M)	10.731	40.688	39.246	13.945
Standard Deviation (SD)	3.744	5.568	5.782	2.989
Skewness	.153	-.089	-.361	-.135
Kurtosis	-.628	.325	-.146	.054

측정 변인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왜도 및 첨도를 살펴보면, 왜도는 -.361~.153 사이에 분포하고, 첨도는 -.628~.325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왜도는 절대값 3 이상, 첨도는 절대값 7이상일 경우 정규성 가정에 위배되는 바, 본 연구의 모든 변인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3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위축, 또래애착 및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8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나머지 모든 변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사회적 위축($r=-.290, p<.01$)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반면, 또래 애착($r=.346, p<.01$) 및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r=.467, p<.01$)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Variables	1	2	3	4
Social withdrawal	1.000			
Peer attachment	-.335**	1.000		
Positive parenting attitude	-.222**	.394**	1.000	
Life satisfaction	-.290**	.346**	.467**	1.000

* $p<.05$, ** $p<.01$, *** $p<.001$

4.4 사회적 위축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또래 애착의 조절효과

사회적 위축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또래 애착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1단계에서는 사회적 위축을 예언변인으로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또래 애착을 예언변인으로 추가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평균 중심화 된 사회적 위축과 또래 애착의 상호작용항을 예언변인으로 추가 투입하였다. 그 결과, 1단계에서 투입된 사회적 위축 변인은 삶의 만족도를 8.3% 설명하였고, 회귀식의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F=220.260, p<.001$). 사회적 위축은 삶의 만족도에 부

적 영향($\beta=-.290,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위축이 클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2단계에서는 사회적 위축에 또래 애착을 추가로 투입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또래 애착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beta=.283,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 애착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모델2의 설명량은 15.4%이었고 ($F=202.217, p<.001$), 설명량은 7.1% 증가하였다. 3단계에서는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여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위축과 또래애착의 상호작용항 모형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049, n.s$). 즉, 사회적 위축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또래 애착은 조절변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 Moder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between Social withdrawal and Life satisfaction

Step	prophecy variable	Life Satisfaction				
		β	t	R ²	ΔR^2	F
1	Social withdrawal (A)	-.290	-14.841***	.083	.084	220.260***
2	A	-.195	-9.796***	.154	.071	202.217***
	Peer attachment (B)	.283	14.220***			
3	A	-.195	-9.763	.154	.000	.049
	B	.283	14.206***			
	A X B	-.004	-.222			

*p<.05, **p<.01, ***p<.001

4.5 사회적 위축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의 조절효과

사회적 위축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1단계는 사회적 위축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를 예언변인으로 투입하였고, 2단계는 평균중심화 된 사회적 위축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의 상호작용항을 예언변인으로 추가 투입하였다[Table 5]. 그 결과, 1단계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beta=.424,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단계1의 설명량은 25.4%이었다($F=410.926, p<.001$). 2단계에서는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여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위축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의 상호작용항 모형($\beta=-.227, p<.05$)은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항의 추가 설명량은 1%이었다. 이에 사회적 위축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는 조절변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simple slop graph로 나타내면 [Fig. 1]과 같다. 사회적 위축은 삶의 만족도와 부적 관계를 나타내는데,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가 높은 집단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가 낮은 집단에 비해 사회적 위축이 있더라도 삶의 만족도가 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가 낮은 집단은 긍정적 양육 태도가 높은 집단에 비해 사회적 위축이 있을 경우 삶의 만족도가 더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Table 5. Moderating effect of Positive parenting attitude between Social withdrawal and Life satisfaction

Step	prophecy variable	Life Satisfaction				
		β	t	R ²	ΔR^2	F
1	Social withdrawal (A)	-.195	-10.828***	.254	.171	410.926***
	Positive parenting attitude(B)	.424	23.479***			
2	A	-.193	-10.694	.264	.01	274.893*
	B	.424	23.512***			
	A X B	-.227	-1.537*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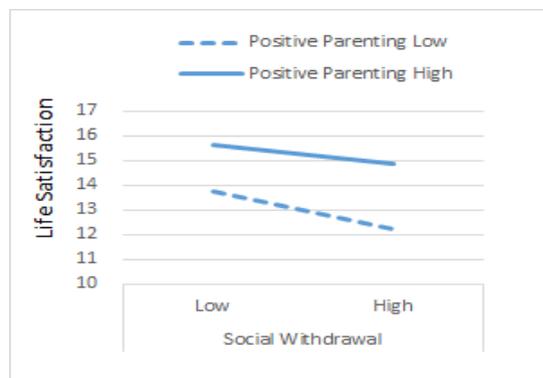


Fig. 1. Simple Slope Graph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사회적 위축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간에 또래 애착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2018(KCYPS 2018)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1학년 학생 2,409명을 대상으로 통계적 분석을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위축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수준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심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사회적 위축은 스트레스 생활 사건에 대한 취약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러한 문제 행동을 자주 경험할수록 부정적 영향을 보이며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가 감소된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15,17,25].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접근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또래 애착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는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의 경우 감정과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고[29,30]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불안, 두려움 때문에 원활한 자기 표현 및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이 어려우며 긍정적인 또래 관계 형성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특성[45]으로 인해 또래 애착의 조절효과가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셋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가 높은 집단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가 낮은 집단에 비해서 사회적 위축이 있을 경우 삶의 만족도가 덜 감소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비록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의 조절효과의 설명량은 적게 나타났지만, 통계적 방법으로 인해 조절효과 자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선행연구들[33,37,43]의 맥락과 함께 사회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수 있겠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가 높으면 사회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가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시사된다.

한편, 청소년기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또래애착의 중요성이 증가한다는 연구를 고려할 때[29,30], 본 연구의 대상인 중학교 1학년 시기는 아직 아동기에 더 근접하여 또래애착 보다는 부모-자녀 관계의 영향력이 더 큰 시기로 볼 수 있겠다. Lee와 Ko의 연구[46]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고, Park의 연구[47]에서 부모의 학대의 영향력이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에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에 따라 또래애착 및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의 조절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이 강력히 시사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위축과 같은 문제 행동을 나타내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사회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위축은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뿐만 아니라 행동적 문제를 유발하면서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바[15], 개인 심리치료적 접근을 통해 사회적 위축의 특성, 원인과 정도를 규명하고 그 영향력을 완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부모-자녀 관계는 중요한 보호체계로, 청소년의 자아개념 형성[38], 대인관계[49]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개념들이 사회적 위축과 삶의 만족도 간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 바[6,25] 보호자에 대한 부모 양육 태도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Karney와 Bradbury[48]의 취약성 스트레스 적응 모델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를 구하도록 작용한다. 하지만 사회적 위축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또래 관계 형성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향이 뚜렷한 바[45], 사회기술 및 의사소통능력, 또래관계 형성 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 훈련 개입이 병행되는 것이 필요할 듯 여겨진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줌에 대한 보호 요인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심리·사회적 개입 방향성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아직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은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에 후기 청소년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연령별 차이를 살펴본다면 발달단계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또래애착의 질뿐만 아니라 친구 수와 같은 양적 개념[50] 및 또래애착의 하위유형[33] 역시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주는 요인

으로 밝혀진 바, 또래애착 및 부모의 양육 태도를 구성하는 하위 요인의 개별적인 영향력을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구성하는 요인 중 관계 요인을 보호요인으로 설정하였으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자아정체감과 같은 개인내적 요인[51] 및 학업과 같은 학교 요인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References

- [1] E. Diener, R. A. Emmons, R. J. Larsen, S. Griffen,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49, No.1, pp.71-75, 1985.
DOI: https://doi.org/10.1207/s15327752ipa4901_13
- [2] E. Diener, S. Oishi, R. E. Lucas,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In C. R. Snyder, S. J. Lopez, *The Oxford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744,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DOI: <https://doi.org/10.1093/oxfordhb/9780195187243.013.0017>
- [3] E. Diener, F. Fujita, "Life satisfaction set point: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88, No.1, pp.158-164, 2005.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88.1.158>
- [4] K. D. Green, R. Forehand, S. J. Beck, B. Vosk, "An assessment of the relationship among measures of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Child Development*, Vol.51, No.4, pp.1149-1156, Dec. 1980.
DOI: <https://doi.org/10.2307/1129556>
- [5] W. S. Lee,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Social Withdrawal on Satisfaction with Life: With Emphasis on the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8, No.3, pp.75-108, 2018.
DOI: <http://dx.doi.org/10.15709/hswr.2018.38.3.75>
- [6] S. A. Barzeva, W. H. J. Meeus, A. J. Oldehinkel, "Social Withdrawal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Measurement Issues, Normative Development, and Distinct Trajectori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47, No.5, pp.865-879, 2019.
DOI: <http://dx.doi.org/10.1007/s10802-018-0497-4>
- [7] C. Booth-LaForce, M. L. Oxford, "Trajectories of social withdrawal from grades 1 to 6: Prediction from early parenting, attachment, and tempera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Vol.44, No.5, pp.1298-1313, 2008.
DOI: <https://doi.org/10.1037/a0012954>
- [8] C. Booth-LaForce, W. Oh, A. E. Kennedy, K. H. Rubin, L. Rose-Krasnor, B. Laursen, "Parent and peer links to trajectories of anxious withdrawal from grades 5 to 8,"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Vol.41, No.2, pp.138-149, 2012.
DOI: <http://dx.doi.org/10.1080/15374416.2012.651995>
- [9] S. C. Han, "Adolescent's Risk Behavior and the Quality of Life: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on Risk Behavior," *Korean Psychological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Vol.12, No.5, pp.99-116, 2006.
- [10]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t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11] Cohen, J,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2nd Edition), p.567, NJ: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 1988, pp.567
- [12] A. B. Nickerson, R. J. Nagle,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 Lat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25, pp.223-249, 2005.
DOI: <https://doi.org/10.1177/0272431604274174>
- [13] J. Bowlby,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p.205, New York:Basic Books Pub, 1988, pp.205.
- [14] W. K. Lee, K. B. Yun, B. K. Park, H. S. Doh, "The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Parents' Over-control, and Sense of Community o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Vol.16, No.2, pp.205-217, 2018.
- [15] B. J. Lee, W. H. Min, J. E. Kim, "A Study for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Social Withdrawal in Adolescence : An Exploratory Approach based on Developmental-Contextualism Perspectiv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1, No.8, pp.317-346, 2014.
- [16] K. H. Rubin, K. B. Burgess, Social withdrawal and anxiety, In M. W. Vasey, M. R. Dadds, *The Developmental Psychology of Anxiety*, p.528, 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 2001.
DOI: <https://doi.org/10.1093/med:psych/9780195123630.003.0018>
- [17] R. J. Coplan, J. C. Bowker, *The handbook of solitude: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ocial isolation, social withdrawal, and being alone*, p.608, John Wiley & Sons Publisher, 2014.
- [18] A. Chronis-Tuscano, K. A. Degnan, D. S. Pine, K. Perez-Edgar, H. A. Henderson, Y. Diaz, et al, "Stable early maternal report of behavioral inhibition predicts lifetime social anxiety disorder in adolesc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Vol.48, pp.928-935, 2009.
DOI: <https://doi.org/10.1097/chi.0b013e3181ae09df>
- [19] R. Y. Jeon, H. H. Kim, "The effects of inconsistent parenting and intrusive parenting on early adolescents' social withdrawal:The mediating effect of early adolescents' self-esteem"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Vol.14, No.2, pp.57-67, 2016.

- [20] C. G. McKnight, E. S. Huebner, S. Suldo, "Relationships among stressful life events, temperament, problem behavior, and global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ts," *Psychology in the Schools*, Vol.39, No.6, pp.677-687, Nov. 2002.
DOI: <https://doi.org/10.1002/pits.10062>
- [21] S. M. Suldo, E. S. Huebner, "The role of lif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oritative parenting dimensions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66, pp.165-195, Apr. 2004.
DOI: <https://doi.org/10.1023/b:soci.0000007498.62080.1e>
- [22] S. M. Suldo, E. S. Huebner, "Is extremely high life satisfaction during adolescence bad/advantageou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78, No.2, pp.179-203, Oct. 2006.
DOI: <https://doi.org/10.1007/s11205-005-8208-2>
- [23] K. M. Chung, M. J. Shin, J. H. Kang, E. S. Kim, "Identification of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social withdrawal in male adolescents: A two-year longitudinal study using growth modeling,"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32, No.1, pp.177-197, 2013.
DOI: <https://doi.org/10.15842/kjcp.2013.32.1.010>
- [24] K. H. Rubin, R. J. Coplan, "Paying attention to and neglecting social withdrawal and social isolation," *Merrill-Palmer Quarterly*, Vol.50, No.4, pp.506-534, Oct. 2004.
DOI: <https://doi.org/10.1353/mpq.2004.0036>
- [25] G. J. Seong, Y. S. Le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ation behavior problem and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 Mediating effects of ego resilience and job choice consciousnes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5, No.12, pp.235-255, Dec. 2018.
DOI: <https://doi.org/10.21509/KJYS.2018.12.25.12.235>
- [26] S. M. Suldo, E. S. Huebner, "Does life satisfaction moderate the effects of stressful life events on psychopathological behavior during adolescence?," *School Psychology Quarterly*, Vol.19, No.2, pp.93-105, 2004.
DOI: <https://doi.org/10.1521/scpq.19.2.93.33313>
- [27] J. H.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Life Satisfaction Expectancy and Stress/Well-Being: An Application of Motivational States Theory,"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12, No.2, pp.325-345, 2007.
DOI: <http://dx.doi.org/10.17315/kjhp.2007.12.2.003>
- [28] M. S. Ainsworth,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Vol.44, No.4 pp.709-716, 1989.
DOI: <https://doi.org/10.1037/0003-066x.44.4.709>
- [29] S. J. Moon, J. S. Baik, "The Effects of Parent Attachment and Peer Attachment on Self - Resilience and Depression,"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Vol.14, No.3, pp.149-160, 2016.
- [30] M. S. Yoon, J. K. Lee, "A Longitudinal Effects of Parent Attachment on Depression in Early Adolescence," *The Social Science Research*, Vol.26, No.2, pp.69-92, 2010.
- [31] Y. S. Han, W. Y. So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attachment and life satisfact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No.1, pp.232-232, 2012.
- [32] S. H. Kim, J. Paik, "The Effect of Peer Attachment on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6, No.9, pp.477-487, Sep. 2018.
DOI: <http://doi.org/10.14400/JDC.2018.16.9.477>
- [33] Y. M. Ha, S. H. Jeong, "The Effects of Adolescents' Peer Attachment and Parenting Behavior on Their Life Satisfaction," *Korean society for Wellness*, Vol.13, No.3 pp.525-538, 2018.
DOI: <http://doi.org/10.21097/ksw.2018.08.13.3.525>
- [34] M. J. Kim, Y. S. Choi, E. Y. Son,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Peer Attachment and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ts: Through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4, No.9, pp.205-222, Sep. 2017.
DOI: <http://doi.org/10.21509/KJYS.2017.09.24.9.205>
- [35] P. K. Smith, R. Myron-Wilson, "Attachment relationship and influence on bullying," *Proceedings of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Vol.6, No.2, pp.89-90, 1998.
- [36] Y. J. Jin, *The Effect of Parental Attitude on Child Self-Concept*, Master's thesis, Kwandong University, Gangneung, Korea, 2005.
- [37] Y. S. Kim, H. I. Cho,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Attitude toward Rearing, Peer Attachment, and School Adjustment Perceived by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31, No.3, pp.529-561, Sep. 2017.
DOI: <http://doi.org/10.17286/KJEP.2017.31.3.07>
- [38] Y. A. Youn, "Parental child rearing practices perceived by parent themselves, and by adolescents Self efficacy of adolescents," *The Youth Welfare Research*, Vol.16, No.4, pp.123-148, 2014.
- [39] H. S. Cha, J. I. Kim, H. S. Le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and School Adaptation of Youth,"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Vol.17, No.4, pp.41-55, 2019.
- [40] S. K. Lee, Y. H. Kim, "Effects of parents' negative rearing attitude and adolescents' psychological factors on hidden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8, No.5 pp.245-266, 2011.
- [41] C. R. Nho, S. Y. Kim,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smartphone dependency: The mediating effects of adolescents' depression and aggression," *Studies on Korean Youth*, Vol.27, No.4, pp.87-114, 2016.
DOI: <http://doi.org/10.14816/sky.2016.27.4.87>
- [42] M. K. Jeong, E. J. Oh,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 and Life Satisfaction,"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Vol.14, No.2, pp.83-93, 2016.

- [43] M. K. Jeong, "Th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ocial Compet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Regulation in Adolescents and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1, No.12, pp.49-72, 2014.
- [44] D. Iacobucci, M. J. Schneider, D. L. Popovich, G. A. Bakamitsos, "Mean centering helps alleviate "micro" but not "macro" multicollinearity,"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48, pp.1308-1317, 2016.
DOI: <https://doi.org/10.3758/s13428-015-0624-x>
- [45] H. Gazelle, G. W. Ladd, "Anxious solitude and peer exclusion: A diathesis-stress model of internalizing trajectories in childhood," *Child Development*, Vol.74, No.1, pp.257-278, Feb. 2003.
DOI: <https://doi.org/10.1111/1467-8624.00534>
- [46] J. S. Lee, K. S. Ko, "Effects of Interpersonal Stress and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Comparison betwee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Vol.40, pp.157-180, 2017.
- [47] J. Y. Park, "The differences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 and high school student where child abuse have effects on adolescent suicid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No.28, pp.61-92, 2010.
DOI: <http://doi.org/10.16975/kifsw.2010..28.003>
- [48] B. R. Karney, T. N. Bradbury,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a review of theory, method,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Vol.118, No.1, pp.3-34, 1995.
DOI: <https://doi.org/10.1037/0033-2909.118.1.3>
- [49] B. S. Oh, Y. S. Won, S. R. Ham, "Effect of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7, No.6, pp.106-115, 2017.
DOI: <http://doi.org/10.5392/JKCA.2017.17.06.106>
- [50] Y. L. Shin, "Moderating Effects of Friendship on the Association between Withdrawal Loneliness and Social Anxiety,"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53, No.6, pp.667-675, 2015.
DOI: <https://doi.org/10.6115/fer.2015.053>
- [51] Y. G. Ku, M. O. Park, "Influence that the Child Abuse by Their Parents Affects the Adolescents' Life-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ediatorial Effect on Peer Attachments and Self-Esteem,"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7, No.8, pp.186-195, 2017.
DOI: <http://doi.org/10.5392/JKCA.2017.17.08.186>

김 인(In Kim)

[정회원]



- 2011년 2월 :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심리학석사)
- 2011년 3월 ~ 2014년 2월 :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실 (임상심리레지던트)
- 2018년 12월 ~ 현재 : 울산스마일센터 심리지원팀

<관심분야>

트라우마, 사회적지지, 사회적위축